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064

2013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논문

존 키츠의 소극적 능력과 오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오 영 승

존 키츠의 소극적 능력과 오드 연구

A Study on John Keats' Negative Capability and Odes

2013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오 영 승

존 키츠의 소극적 능력과 오드 연구

지도교수 조 동 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오 영 승

오영승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옥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동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문길 인

2013년 5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

Ⅰ. 서론 …… 1

II. Negative Capability의 형성과정과 의미 …… 4

III. Odes시에 나타난 Negative Capability …… 12

IV. 결 론 …… 43

▷ Bibliography …… 47

ABSTRACT

A Study on John Keats' Negative Capability and Odes

Young Seung Oh
Adviser : Prof. Dong-yul Cho, Ph, D
Department of English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John Keats(1795-1821) was a poet who created many great works only for four years which, for a poet, was too short a time to do so in. He was a post-romantic poet, who tried to find truth and beauty in human life. He introduced the term, "Negative Capability", in a letter written on December in 1817 to define a literary quality, which was possessed dominantly by Shakespeare. That is about when a man is capable of being in un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problem attaining fact and reason.

In particular, he believed that metaphysical thoughts and religions could not settle the pain of the real world. He thought that beauty made our life positive and that it was a factor, which made human beings harmonious with nature. When we jointly observe Keats' other letters, "Negative Capability" could be taken to characterize an impersonal author, or an author who maintained aesthetic distance and further suggest that, when embodied in a beautiful artistic form, the literary subject matter, concepts and characters were not subject to the ordinary standards of evidence, truth and morality as we apply these standards in our practical experience.

For all the romantics, imagination is the creative power, which links the poets' minds with the external world, the ideal world and the real

world. Keats′ pursuit of beauty was based on "Negative Capability" that made man taken in uncertainties, mysteries, and doubts without any excessive reaching after fact or reason. We can find the aspect in his *Odes,* which is about pain and examines how to take and find comfort as well as happiness in real life. We know by the contents of these letters that he experienced a paradoxical situation whereby his poetic theory of transcendental idealism merged into a poetry theory based on the imperfect reality.

Firstly, this study reveals the sensual love that Keats desired to express continually through his imagination in "*Ode to Psyche*" and "*Ode to a Nightingale*". Secondly, it explains the eternal love as truth in "*Ode on Melancholy*", "*Ode on a Grecian Urn*", *and* "*To Autumn*". Keats contrasts both bright and dark sides of life through the real world, such as sorrow and joy, agony and pleasure, unhappiness and happiness. Therefore, he tried to find a permanent and unchanging refuge in the world through the love of beauty.

Finally, the significance that all of Keats′ poems have is the acceptance and comprehension of the real world which has pain and sorrow through imagination of an optimistic attitude. In other words, Keats′ poems make us realized beauty as truth through the harmony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Continuos pursuit of beauty, in Keats′ poems, would be one of many ways to get comfort and happiness in life.

Ⅰ. 서론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4년이라는 짧은 시인의 삶을 살았지만,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는 후기 낭만주의 시인으로 시의 기본 사상을 인본주의(Humanism)에 두었다. 그는 일생동안 인간의 삶에 대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찾고자 노력했다. 또한 인간의 삶이 고통과 아픔, 슬픔으로 가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했다. 키츠는 초현실적 세계를 추구하거나 이념이며 독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스의 고전 등을 통하여 미를 추구하며 시의 주제로 다뤘다. 모든 사물과 자연에서 미를 추구하고 이를 영원한 진리와 동일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키츠가 추구했던 미와 진리는 순수한 자연과 우주에서 얻어지는 감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 감정의 양면성을 통합하여 얻어지는 아름다움도 포함하고 있다. 즉, 쾌락과 고통의 뒤섞임, 사랑의 파괴성, 죽음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된 에로틱함 등 역설적이며, 대조적인 요소의 통합을 말한다. 키츠는 현실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꾸준히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낭만주의 시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키츠는 모든 유쾌하지 않는 것들을 미와 진실에 결부시켜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을 통해 상반되는 대립현상들을 조화의 상태로 바꾸려 노력하였다.

키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숙독하고 그의 작품세계로 몰입하게 된다. 그 후 1819년의 후기작품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영향 아래에서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를 통해 작품세계를 구현하였음을 그가 남긴 여러 편지들과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Negative Capability'를 직역하면 '소극적 능력'으로 해석된다. 즉,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도를 부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과 감성을 최대한 수용하여 시에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Negative Capability'의 기본 개념이다. 키츠는 이와 같은 '소극적 능력'을 통한 시 창작에 앞서 우

선 자기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일단 부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다소 역설적이기도 한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는 시인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소극적'이지만, 일단 시인의 개성이 배제된 상태가 되면 사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변화무쌍한 성격과 현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포용하여 진정한 '미'를 작품 속에 좀 더 완벽한 상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키츠는 먼저 시인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으로부터 마음을 개방하는 능력을 스스로 훈련하였다. 이와 같은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는 종교나 철학적 이론에 의존하여 현실세계의 어렵고 힘든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체계나 공식 속에 넣어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포괄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키츠는 작가라면 현실세계의 불확실함과 초현실 세계의 신비함 속에서 자아의 주관적인 주장과 의도를 내세우지 않고, 자아를 비워낸 객관적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여겼다. 이것이 곧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시론의 궁극적 개념이다. 작가는 여러 가지 상황설정과 구성을 비롯하여 등장인물의 성격까지 다양한 창조력을 발휘해야한다는 점에서 'Negative Capability'는 당연한 조건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항시 '자아를 비워낸 상태(Empty mind)'에서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광범위한 생각(Vast mind)'이 떠오를 수 있게 되어 작품이 창작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키츠의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은 상당부분 셰익스피어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키츠는 셰익스피어의 성공비결을 'Negative Capability'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키츠가 설명하는 '소극적 능력'는 셰익스피어가 실천하였던 것처럼 자기를 비운 상태로 객관적 대상에 충실하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은 불명확함, 신비 그리고 의혹에 대하여 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작품과 시인의 신념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몰개성(Impersonality)'의 개념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키츠는 'Negative Capability'가 무한대로 적용된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 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시는 한 단계 높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Negative Capability’는 외부의 모든 것을 분별하여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공감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상상력의 한 형태로 이성과 반대되며 외부 사물의 신비스러움과 오묘함을 그것의 정체 파악 없이도 쉽게 수용한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소극적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속성과 정체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삭제하여 자신을 백지의 상태로 유지한다. 그런 다음 시인은 그가 목표로 하는 외부 사물에 몰입하여 사물과 하나가 되는데 이 사물에 몰입하여 하나가 되는 순간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더불어 그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시인에게 있어 이 아름다움은 진리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색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로 파악된다. 시인이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그 아름다움에서 진리를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그의 ‘Negative Capability’ 때문이다.

이와 같은 ‘Negative Capability’이 그의 여러 시에서 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키츠는 “Ode on a Grecian Urn(그리스 항아리에게 붙이는 송가)"에서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와 그의 상상력이 잘 작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외부대상인 도자기에 몰입해 들어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즉 그는 조각품의 창조과정을 자신 스스로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예술품을 보고 비슷한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 키츠 자신도 본질세계로의 이 신비적 경험을 그의 시 “Ode to a Nightingale(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에서 극대화하고 있다. 시인은 처음서부터 ‘Nightingale’노래에 도취하며 그것의 행복함 속으로 서서히 빠져든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키츠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진리를 독창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키츠의 문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상상력은 키츠에게 있어서 포착된 미와 진리를 인식하는 필요수단이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영원한 추구의 대상이자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키츠의 상상력의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서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외부를 향해 열린 마음 즉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을 가짐으로써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키츠의 이러한 소극적 능력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밝히고 아울러 그의 시에 소극적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II. Negative Capability의 형성과정과 의미

상상력은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들과 그 이전 시대의 시인을 구분할 수 없는 중요한 변별적 요소이다. 이 시대 시인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꿈과 이상에 대한 인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상상력은 그들의 예술세계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상상력은 진실, 진리,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능력이며, 인간과 우주, 인간과 신성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키츠는 낭만주의 어느 시인보다도 상상력과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시를 썼다. 시인은 미를 위해서 미를 추구했던 시인으로 기억되며, 영국 시인 중 가장 직접적이며 객관적이다. 시인은 영시 중 감각에 호소한 시를 썼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의 위대한 오드는 시 세계에 있어서 상상력과 현실의 올바른 조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워즈워스의 비평적 산문, 콜리지의「문학평전」,셸리의「시의 옹호」,그리고 키츠의 서한집은 모두 상상력이 핵심적 주제이다. 그러나 키츠의 상상력은 전자의 시인들의 논집과 달리 순전히 사적이고 내밀한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특히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은 키츠의 상상력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은 이 능력을 통해서 현실세계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미와 진리를 탐색하는 상상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극적 능력”은 하나의 문학 술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시인의 작품에 있어서 주석 역할을 한다.

시인의 시와 편지는 각각 시인의 예술세계와 현실세계를 반영하지만 키츠는 상상력 안에서 두 세계를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두 세계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1818년 10월 리차드 우드하우스(Richard woodhouse)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시인의 개성이 배제되어 비시적인(unpoetical)존재가 되어야함을 역설하였다.

A Poet is the most unpoetical of anything in exercise; because he has no Identity...-he is certainly the most unpoetical of God's Creatures.
(*Letters* 172)[1)]

다소 역설적이기도 한 'Negative Capability'는 시인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소극적'이지만, 일단 시인의 개성이 배제된 상태가 되면 사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변화무쌍한 성격과 현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포용하여 진정한 '미'를 작품 속에 좀 더 완벽한 상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키츠는 먼저 시인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으로부터 마음을 개방하는 능력을 스스로 훈련하였다. 하나의 체계나 공식 속에 넣어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포괄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키츠는 작가라면 현실세계의 불확실함과 초현실 세계의 신비함 속에서 자아의 주관적인 주장과 의도를 내세우지 말고, 자아를 비워낸 객관적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여겼다. 키츠는 시인의 자아에 대하여 워즈워드나 바이런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그의 견해를 그가 남긴 서한집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several things dovetailed in my mind, and at once it struck me what quality went to form a Man of Achievement, especially in Literature, and which Shakespear possessed so enoromously- I mean *Negative Capability,* that is, when men is capable of being in un 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and reason- caught from the Penetralium of mystery, from being incapable of remaining content with half knowledge. This pursued through voulmes would perhaps take us no

1) John Keats,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ed, Hyder Edward Rollins, 2 vols, Harvard UP, Cambridge, 1978, Ⅰ, 193

futher than this, that with a great poet the sense of Beauty overcomes every other consideration or rather obliterates all consideration. (*Letters* 53)

키츠는 셰익스피어의 성공비결이 'Negative Capability' 즉, '소극적 수용력'에 있었다고 보았다. 키츠가 설명하는 'Negative Capability'는 셰익스피어가 실천하였던 것처럼 자기를 비운 상태로 만들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말은 불명확함, 신비 그리고 의혹에 대하여 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작품과 시인의 신념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몰개성(Impersonality)' 개념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편지에서도 언급했듯이 키츠는 'Negative Capability'가 무한대로 적용된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 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시는 한 단계 높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키츠는 이전에도 종종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으나 1817년 <엔디미넌(Endymion)>을 집필할 무렵부터 깊이 심취하기 시작했다.

키츠에게 상상력은 현실 도피의 도구로 상당히 매혹적 이었으며 상상력의 실상을 그의 편지에서 분석하고 있다. 키츠는 그의 편지에서 상상력은 바깥 사물을 꿰뚫어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I say 'Soul making' Soul as distinguished from
an Intelligence- There may be intelligences or sparks of
the divinity in millions- but they are not Souls till
they acquire identities, till each one is personally itself.
I<n>telligenes are atoms of perception- they know
and they see and they are pure, in short they are
God- how then are Soul to made?····it is a
system of Spirit-creation.[2] ("Letter 123", p.335)

2) John Keats, *The letters of John Keats* ed., by Maurice Buxton Forman(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p.335

키츠는 상상력에 의한 시 창조의 과정에서 사물의 본질과 정체를 파악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편지에서 이것을 "soul making(영혼 만들기)" 라 말한다.

The husk of natural objects opens quite
To the core; and every secret essence there
Reveals the elements of good and fair;
Making him see, where Learning hath no light. [3](“The Poet", 5-8)

이 영혼은 상상력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시인의 마음과 정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태이기도 하다. “The Soul, for Keats, is that condition of man in which his Mind and his Heart are reconciled."[4]
외부의 사물이 시인의 감정과 상상력에 의해서 본질 없는 지식에서 본질을 지니는 영혼으로 발전한다. 시 창조의 과정은 상상력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작용의 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intensity"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이다. 이 두 단계에서 각기 작용하는 상상력에 관하여 Mr. Wasser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imagination functions by projecting the self into the
beauty, the vital essence of its objective, and thereby sees
that essence in terms of its eternal being in heaven's bourne.[5]

"and" 접속사 앞부분은 객체와 주체가 화합하는 "intensity"에 해당되고, 뒷부

3) John Keats, Keats: Poetical Works ed, by M. W. Garro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419
4) John Middleton Murry, Keats (Londons: The Alden Press. 1955). p.225.
5) Earl R. Wasserman, The Finer Ton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p.192

분은 "identity"에 의해서 파악된 객체의 본질인 미를 진실로 읽어내는 "identity"에 해당된다. 첫 단계에서 말하는 "intensity"는 시인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지각된 외부사물과 객체에서 능동적으로 본질인 미를 감지한다. 상상력의 작용은 시인의 마음 속에서 객체와 주체를 결합하는 매개체로 더욱 고조되고 강력해진다. 시인 자신은 객체와 주체의 적극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특수한 자질이 필요하다. 시인은 이성과 사실을 매사에 규명하기 보단 모든 것을 불분명하고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를 가져야 한다. 키츠는 이러한 자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작가로 Shakespeare를 지적하고 있다.

it struck me what quality went to form a Man of
Achievement especially in Literature and which Shakespeare
possessed so enormously- I mean Negative Capability,
that is when man is capable of being in un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and reason. ("Letter 32", p.71)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는 외부의 모든 것을 분별하여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공감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이성과 반대되는 상상력은 그것의 정확한 정체 파악 없이도 외부 사물의 신비스러움과 오묘함을 쉽게 수용한다. 시인의 자질로서 필요한 "Negative Capability"는 "identity"를 거부한다. 시인은 자신이 고정된 속성을 갖게 되면 자신이 아닌 객체의 속성을 쉽게 탈바꿈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시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키츠는 시인의 성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As to the poetical Character itself (I mean that sort of
which, if I am any thing, I am a Member; that sort

distinguished from the wordsworthian or egotistical sublime:
which is a thing per so and stands alone) it is not
itself-it has no self-it is every thing and
nothing-It has no character ("Letter 93", p.226)

시인은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러 형태로 변하는 "the camelion poet" ("Letter 93", p.227)이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가장 비시적이다.

A poet is the most unpoetical of any thing in existence;
because he has no Identity- he is continually in for-
and filling some other Body. ("Letter 93", p.227)

시인은 아이로니컬하게도 "identity"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시적이다. 이것은 또한 시적인 것은 "identity"를 가지는 것이며 시는 "identity"의 추구임을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소극적 능력"을 가진 시인이 객체에 대해서 자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본질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간파하고 동시에 그것을 "beauty(미)"로서 감지한다. "Truth"에 비길 수 있는 키츠의 "beauty"는 감각적인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것은 "a sense of spiritual reality which the which the mind apprehends imaginatively, then, or immediately rather than indirectly."[6]이다.

"Beauty"를 감지함은 시인이 상상력에 의하여 객체의 내면의 실재를 아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the emotional recognition of the life-truth revealed there[7]"을 말한다. 즉 키츠의 "beauty"개념은 감각기관의 수동적인

6) Clarence Dewitt Thorpe, The Mind of John Keats (New York: Russell &Russell, 1964), pp.127-28.
7) Ibid., p.128.

작용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능동적인 작용을 함께 포함된다. 키츠는 외부 사물과의 감각적 경험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상상력과 감정이 적극적인 개입에 심취하여 동시에 작용하여, "beauty"에 관하여 각별한 애정을 나타낸다. 그의 편지에서 살펴보면,

The yearning Passion I have for tile beautiful, connected

and made one with the ambition of my intellect. ("Letter'94", p.24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beauty"는 그의 연모는 단순한 미에 관한 것이 아니라 "truth"에 대한 갈망을 동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의 열정은 "an intellectual and spiritual passion"[8]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시인에게는 "beauty"에 대한 의식이 그 어느 것 보다 우선한다. ("Letter 32", p.71) 뿐만 아니라, 키츠는 어떠한 진실도 그것의 "beauty"를 감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키츠의 "beauty"에 대한 애착심과 열렬함이 그것의 객체와 주체가 하나가 됨으로써 객체의 본질이 파악되는 "truth"이 "identity"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what the imagination seizes as Beauty must be truth."("Letter 31," p.67)라고 말한다. 시인의 마음과 정신에 의해서 "beauty"에서 "truth"로 향하는 과정은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경험이다. 키츠는 "Endymion"에서 다음과 같이 "happiness"를 설명한다.

Wherein lies happiness? In that which becks

Our ready minds to fellowship divine,

A fellowship with essence; till we shine,

Full alchemiz'd,, and free of space. ("Endymion" Book I , 777-80)

---

8) Matthew Arnold, "John Keats", Critics on Keats ed., by Judith O'Neill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7) , p.13.

“Beauty″의 감지에서 창조적으로 작용한 상상력은 객체에 대하여 계속해서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로 활동한다. ″Ready minds″는 바로 이와 같은 상상력의 작용을 말하며, “happiness″는 상상력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시인이 자신을 잃고 객체와 동일하게 되는 “intensity″경지로 접어드는 즐거운 상태이다. 그 순간 시인의 마음은 고조되고 심지어 승화되기도 한다.

결국 키츠는 Negative Capability를 통해서 자신의 속성과 정체성을 배제하고 투명한 상태로 유지하여 외부 대상에 몰입해 들어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상상력이 고조됨에 따라 즉 intensity의 과정이 일어남에 따라 시인은 외부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외부대상에 몰입하여 그 대상과 하나가 된 시인은 그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곧 그 아름다움이 본질 즉 진리임을 밝힌다. 눈에 보이는 현실 대상에서 본질과 진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키츠가 그의 주체성을 버릴 수 있는 Negative Capability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III. Odes시에 나타난 Negative Capability

이 같은 Negative Capability는 그의 Ode시에 분명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Ode on a Grecian Urn (그리스 항아리에게 붙이는 송가)」에서 그는 조각품의 창조과정을 자신 스스로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예술품을 보고 비슷한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걸 말한다. 시인은 예술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문제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미와 진리를 동일시하면서 미를 진리의 위상에 올려놓는다. 그리스 항아리 자체는 그것이 빚어졌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함으로서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Thou still unravished bride of quietness,
Thou foster child of silence and slow time,
Sylvan historian, who canst thus express
A flowery tale more sweetly than our rhyme:(1～4)

1연에서 키츠는 특징적 패러독스를 사용하여 항아리의 개괄적 묘사를 하고 있다. 항아리위에 새겨진 신부는 아직도 범해지지 않은 조용한 신부이다. 하지만 “still”의 역설 속에 그 신부는 언젠가는 범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 쇠퇴되나 항아리만은 시간에 의해 소중하게 키워진 양자이다. 항아리위에 새겨진 전설은 신성하기도 하고 필멸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 항아리에 그려진 그림 속의 신부는 영원히 순결하다. 그래서 시인은 항아리에 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과거의 시간을 형상화하였기 때문에 삼림의 역사가로 표현하고 있다. 삼림의 역사가는 시인의 시보다 더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 항아리를 보고 탄복한 나머지 그 객체에 한층 가까이 접근한다. 그것에 새겨진 그림을 그는 상상력에 의거하여 의미 깊게 읽어낸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the excellence of every Art is its intensity, capable of making all disagreeables evaporate(I ,192)

시인에게 있어서 미의 본질은 아주 명확하게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개념에는 엄격히 따져서 중요한 연상이나 특질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흔적 없이 사라진다. 시인의 이와 같은 해결안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만큼 오래된 것이데, 현실의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는 미학적 표현을 즐기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은 미와 진실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What wild ecstasy?"("Urn", 10)라고 말함으로써 생명을 지니지 못한 항아리에게 생명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것의 삶 속으로 몰입한다.

시몬슨(Harold P. Simonson)은 이 능력을 자기 부정적 능력 즉, 불안, 신비, 의심 속에서 사실이나 이유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불완전한 지식으로 만족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경지라고 말하고 있다. 악착같이 사실이나 이유를 추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아는 지혜이다. 일찍이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는 「인간론」("An Essay on Man")에서 인간에 대한 신의 방식을 옹호하기 위해 "하나의 진리는 분명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모든 옳다"라고 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옳다면 인생의 수수께끼를,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모순을 모순 그대로 있게 하고, 논리나 이성에 의하여 사물을 왜곡하지 않는 능력이 시인으로 하여금 인생을 즐거움 속에서 고통을, 기쁨 속에서 슬픔을, 삶 속에서 죽음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시인의 시는 몽상과 냉엄한 현실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소극적 수용능력"의 산물이다.[9)]

2연에서 키츠는 역설적인 표현, "Heard melodies are sweet, but those unheard/Are sweeter"("Urn", 11-12)을 사용하여 상상력의 힘을 과시한다. 그 힘은 정신세계에 호소하기 때문에 시인을 더욱 달콤하고 즐겁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만든 예술세계는 영원의 세계이므로 시인은 그 세계를

9) 이정호,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영미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1.

부러움과 동경 속에서 공감한다.

3연에서 그는 정신과 마음이 강렬해진 상태에서 항아리의 영원의 세계 또는 본질의 세계 속으로 진입한다. 그 문턱에서 그는 뜨거운 행복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이 연에서는 "happy"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Ah, happy. happy boughs! that cannot shed

Your leaves, nor ever bid the Spring adieu;

And, happy melodist, unwearied,

For ever piping songs for ever new;

More happy love! more happy, more love! ("Urn", 21-25)

항아리에 그려진 그림의 "생"과 하나가 되려는 순간, 앞서 "Endymion"에서 말했듯이, 시인의 마음은 둥둥 떠도는 영혼처럼 고조되고 가열된다. Mr. Wasserman은 그의 저서 The Finer Tone에서 "happiness"가 나뭇가지 자체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f boughs can beckon us there, then happiness lies in them

just as we assume a greenness in leaves if they have within

themselves the property of provoking in us a perception of greenness.[10)]

"Happiness"는 Mr. Wasserman이 주장하듯 본질세계 이끌리듯, 시인의 상상력의 산물로 간주된다. 시인은 항아리를 생명을 부여하듯 상상력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보고 생명을 부여했다. 그 결과 항아리는 생명 있는, 의미심장한 물체로 발전한다. 그의 마음과 상상력에도 영향을 주어 고양된 마음을 자아낸다. “Happy boughs"는 시인이 무생물 속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행복감 즉 살아있는 체온을 감지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해준다. 이것은 워즈워드

10) The Finer Tone, op. cit., p.23.

의 "creative sensibility"[11]와 유사하다. 워즈워드는 “The Prelude, Book II”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d powerful in all sentiments of grief,
Of exultation, fear, and joy, his mind,
Even as an agent of the one great mind
Creates, creator and receiver both,
Waking but in alliance with the works
Which it beholds-Such, verily, is the first
Poetic spirit of our human life.[12]

워즈워드의 "Creative sensibility"처럼 키츠는 상상력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항아리의 아름다움에 자극을 받아 즐거운 마음 상태에서 그 가지가 행복하다고 한 것이다. 즉 "creator and receiver"은 상상력으로 각기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나뭇잎의 초록색을 감지하는 경우와 나뭇가지의 행복함을 감지하는 경우 객체와 주체의 상호작용은 결코 동등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그것의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주체의 상상력이 창조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상력 작용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시 창조 과정의 첫 단계인 “intensity"의 절정 이전의 “happiness" 상태는 시인의 상상력과 감정에 의해서 점점 더 가열된다. 키츠가 “purgatory blind"(“To J.H. Reynolds Esq.", 80) 라고 이름하는 “intensity"상태에서 시인은 “happiness"상태에서 보다 더욱 활발하게 자신의 속성을 버리고 객체의 본질 속으로 파고든다. 객체의 본질을 포착하려면 시인은 영혼의 뜨거운 불길에서 그것의 정수(精髓)만 뽑아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시의 생명은 이 본질을 추출하는 “intensity"에 있다.

---

11)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Growith of a Poet's Mind, ed., by Ernest De Selincou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p.30.
12) Ibid., p.27.

The excellence of every Art is its intensity, capable of making all disagreeables evaporate, from their being in close relationship with Beauty and Truth. ("Letter 32", p.70)

이와 같이 "intensity" 상태에서 객체의 비본질적인 요소는 증발되고 오로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게 된다. "intensity"는 상상력과 감정의 강렬함을 하나의 본질을 추출이외에 중요한 작용을 보여준다. 즉 주체와 객체 사이에 발생하는 그 상태를 "empathy"이다. 키츠의 "empathy"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됨에 따라 주체가 자신의 속성을 잃고 객체와 화함으로써 현실세계 또는 물질세계를 초월하여 순수한 정신세계로 몰입함을 나타낸다.

이점에 관해서 Mr. Thorpe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This process with Keats is not merely a submergence of one's self into another: it is not a substitution where the poet puts himself in the place of the object of his contemplation: it is rather a sort of etherized penetration, in which the poetic soul, acting as an ethereal chemical operating on man and the physical world, liberates the fine essence of spiritual being in its purest and freest state, to be condensed, through the agency of beautiful verse, into new elements of living truth.[13)]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키츠의 "empathy"는 시인이 셸리의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객체의 처지에 두는 것으로, 그것은 시인이 자신을 잃고 본질 세계 또는 Idea세계를 경험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Mr. Wasserman도 다음

13) Thorpe. op. cit., pp.108-109.

과 같이 "empathy"를 전의한다.

For lack of another term I am using the word "empathy" here to describe, not the ego's attribution of the modes of its own activity to outward forms, but the act of freeing the self of its identity and its existence in time and space, and consequently the act of mystic absorption into the essence of outward forms. In this latter sense the doctrine of empathy is one of the cardinal principles of Keats' poetic and religious creed.[14]

시인의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Ode to a Nightingale)」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 시는 총8연으로 이루어진 시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예술과 삶의 존재에 대한 불가분성을 수용하는 인간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15] 예술과 삶의 존재의 불가분성은 수용하는 시인의 자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소극적 수용능력의 결과일 것이다.

1연에서 시인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에 이끌려 그 새의 세계로 들어간다. 새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감각에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함께 고양된 미적 상태를 경험하나 그 노래가 끝나자 곧 그 느낌도 살아진다. 시인의 경험은 2,3연에서의 행복의 상태와 고통의 상태로 대조되면서 전개된다.

Fade far away, disslove, and quite forget
What thou among the leaves hast never known,
The weariness, the fever, and the fret

14) The Finer Tone, op. cit., p.24.
15) Abrams, M. H. ed. *English Romantics Poets*. Oxford UP, New York, 1997. (436)

Here, where men sit and hear each other groan;
Where palsy shakes a few dad, last gray hairs,
Where youth grows pale, and specter- thin, and dies;(25~30)

시인은 아름다운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있지만 인간이 사는 곳은 앉아서 서로의 신음 소리만 듣는, 중풍이 몇 가닥 안 되는 처량한 마지막 흰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는 곳, 청춘이 창백해져서 유령처럼 말라 죽어가는 곳이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슬픔으로 가득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 같은 죽을 운명의 존재는 시인의 정신 상태와 유사하다.

여기서 시인의 삶에 대한 회의는 극에 달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시인은"나는 안락한 죽음과 반쯤이나 사랑에 빠져", "많은 명상적인 시로 죽음에게 부드러운 이름을 불렀다". 시인은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지만 도피의 상징으로 "안락한 죽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이 죽음 속에서 생각한 해방은 결코 조용하고 쉬운 죽음만은 아니고 오히려 "지고한 행복의 순간(rich to die)"인 것이다. 시인은 죽음을 어쩌면 궁극적인 경험으로, 어떤 충만감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이 시가 단지 인간 경험의 복합성을 상상력으로 반영한 것이라면 죽음 그 자체는 생의 충만감을 나타내는 것이다.[16]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것은 그 주체, 혹은 영혼과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고 키츠의 창조적 행위는 종종- 환상이든 아니든-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퍼킨스(Perkins)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갈망은 시인 자신이 갈망하는 죽음이다.

그렇지만 시인은 7연에 이르자 "그대는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어 불멸의 새여!" 이제 나이팅게일은 죽기 위해 태어난 새가 아니라 불멸의 새가 된다. 그 불멸성은 "지나가는 밤"과 인간의 짧은 생애와 대조된다. 시인은 인간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구약의 루스도 들었을 법한 노래를 시공을 초월해서 부름으로써 그리스 항아리처럼 영원히 남은 존재로 전이된다.

시인은 8연에 이르자 "불쌍하군!"소리에 환각에서 개어 3연에서 너무나 삭

16) Abrams, M. H. ed. *English Romantics Poets*. Oxford UP, New York, 1997. (438)

막해서 떠나고 싶었던 현실 세계로 되돌아온다.

Was it a vision, or waking dream?
Fled is that music:-Do I wake or sleep?

시인은 상상력의 세계가 무너지고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도 사라지자 자신이 경험했던 순간이 진리에 이른 순간인지 환상의 순간인지 분명하지 않다. 시인은 설교도 어떤 고통의 서정적 외침도 없이 무상한 인생의 슬픔에 대해 담담히 불확실성과 의문 속에 “소극적 수용능력”을 우리에게 남긴다.

“소극적 수용능력”은 “꿈꾸는 자”와 시인에게는 더욱 넓게 더욱 대중적이 될지 모르지만 키츠 자신은 “꿈꾸는 자”와 “시인”사이의 경험을 아주 훌륭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 능력은 마음을 텅 비우고 온갖 세상사를 수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텅 비운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해탈의 경지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마음을 텅 비운 상태에서도 시인은 감각기관을 통해 흘러드는 온갖 자극들을 기존의 관념 체계 내에서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키치의 시는 부정의 미학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부정은 긍정의 반대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긍정을 포함하는 긍정을 수용하는 부정일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분명한 것은 키츠가 “꿈”이라고 한 것은 그 자신의 기술만큼 탄탄하고 긍정적인 것이다.[17]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은 그 누구도 하나의 체계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의 사심 없는 마음이고 충만하고 구체성 안에 있는 실제에 대한 고양된 감수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반쯤 아는 지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극적 수용능력”인 것이다.[18]

키츠가 시 작품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술과 자연의 관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와 문제의 의미를 시에 담았다. 이는 시인을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과 뚜렷이 구분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

17) Gleckner, Robert. F. ed, *Romanticism Points of view,* Wayne State Up, Detroit, 1975.
18) Bate, Walter Jackson, ed. K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N.J, 1964.

키츠 자신도 본질세계에로의 이 신비적 경험을 그의 시 “Ode to a Nightingale(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에서 극대화하고 있다. 시인은 처음서부터 Nightingale노래에 도취하며 그것의 행복함 속으로 서서히 빠져든다. “Tis not through envy of thy happy lot,/But being too happy in thine happiness."(“Nigtingale", 5-6) 4연에서 시인은 시 창조의 “intensity"상태를 통하여 새의 황홀한 경지에 거의 도달한다.

Away! away! for I will fly to thee,

Not charioted by Bacchus and his pards,

But on the viewless wings of Poesy,

Though the dull brain perplexes and retards:

Aleady with thee! (“Nightingale", 31-35)

그의 정신과 마음이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6연에서 시인은 죽음을 이야기한다. 이 죽음은 현실세계를 초월하여 정신세계로 몰입하는 극도의 뜨거운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그 죽음은 풍요로울 정도다.

Now more than ever seems it rich to die,

To cease upon the midnight with no pain,

While thou art pouring forth thy soul abroad

In such an ecstasy ("Nightingale", 55-58).

자기 노래에 도취하여 한껏 영혼을 쏟아놓는 ‘Nightingale’처럼 키츠도 시 창조를 통하여 최상의 “intensity" 즉 죽음에 도달한다. 키츠는 그의 시 “Why Did I Laugh Tonight"에서 죽음의 강렬함을 주장하고 있다.

Verse, fame, and beauty are intense indeed,
But death intenser-death is life's high meed. ("Laugh", 13-14)

다시 말하여, 죽음은 본질세계 경계면에 위치한 "intensity"중의 "intensity"이다.

[Death] is the final intensity at the very verge of immortal life that shatters the "fragile bar/That keeps us from our homes ethereal" and places us in Intensity itself, where at last life's self is perpetually nourished by its own essence.[19)]

시인은 죽음에 비유될 수 있는 이 절정의 강렬함 속에서 신비스럽게 객체의 본질을 꿰뚫어 읽어낸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에 의해서 의미심장한 'identity'를 지니게 되고 생동감 있다.

객체의 본질 파악에 필수불가결인 "intensity"는 오로지 주체인 시인의 정신과 마음, 바꾸어 말하면, 상상력과 감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키츠는 그의 친지에서 이 두 기능을 가장 신봉한다고 말한다. "I am certain of nothing but of the holiness of the Heart's affections and the truth of Imagination". ("Letter 31", p.67) 시 창조 과정에서 "intensity'" 단계에 이르는 "beauty"와 "happiness"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인의 상상력과 감정이 상호 의존하여 작용한다. 그러나 "intensity" 단계에서는 그 작용도가 더욱 심화된다. 상상력을 살펴보면, 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Negative Capability"는 이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mphatic power"로서 작용한다. 다시 말하여, 시인은 상상력에 의해서 객체에 대하여 기꺼이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떠나 객체 속으로 이입(移入)한다. 키츠는 "intensity"와 관련된 상상력의

19) The Finer Tone, op cit., p.195.

작용 즉 정신적 추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very mental pursuit takes its reality and worth from
the ardour of the pursuer-being in itself a nothing. ("Letter 53", p.111)

상상력의 열렬함만이 객체와 주체를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정신적 작용을 가능케한다. 키츠는 "intensity"에서 작용하는 상상력을 "a greeting of the Spirit"라고 이름하며, 그 힘에 의해서 비로소 객체는 존재가치를 지니며 심지어 고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Things semi-real such as Love, the Clouds &C. which
require a greeting of the Spirit to make them wholly exist-
and Nothings which are made Great and dignified by an ardent
pursuit-which by the by stamps the burgundy
mark on the bottles of our Minds, in so much as
they are able to "consec<r>ate whate'ver they
look upon." ("Letter 53", p.111)

여기서 그는 상상력의 열렬함을 정신의 병에 달아오른 적색 포도주에 비유함으로써 그것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상상력의 열렬함의 별명인 "a greeting of the Spirit"는 또한 "a coalescence between the objects of perception and the power of the mind that fulfills and extends them in the act of apprehension"[20]이다. 즉 그것은 객체를 의미 깊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emphatic power"로서의 상상력을 말한다.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intensity"를 조성하는 것은 감정이다. 또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감정은 사랑이다. 키츠는 "Endymion"에서 "intensity"로

20) Stuart M. Sperry, Keats the Po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p.69.

인도하는 사랑의 모습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at the tip-top,

There hangs by unseen film, an orbed drop

Of light, and that is love: its influence,

Thrown in our eyes, genders a novel sense,

At which we start and fret: till in the end,

Melting into its radiance, we blend.

Mingle, and so become a Part of it. ("Endymion," Book I, 805-12)

사랑은 둥근 빛 방울이며, 그 빛에 의해서 시인은 경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영롱한 빛의 세계 즉 영혼의 세계 속에 섞여 자신도 영화(靈化)된다. "Endymion"에서 "Endymion"은 천상의 미인 'Cynthia'를 연모하지만, 그가 지상의 Indian Maid를 사랑할 때 비로소 'Cynthia'의 친상의 세계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시인은 또한 사랑의 따뜻한 친화력으로 객체와 한 덩어리가 되는 "empathy"를 성취한다. "love introduces us to an experience of empathy which is active rather than passive."[21]

"Intensity"에서 작용하는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상상력과 유사하게 객체의 본질 파악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포함한 모든 열정은 숭엄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의 본질을 창조하기도 한다.

I have the same Idea of all our Passions as of

Love they are all in their sublime, creative of

essential Beauty. ("Letter 31". p.67)

---

21) Bernard Blackstone, "The Mind of Keats in His Art," British Romantic Poets, ed., by Shiv K. Kumar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68) ,p.266.

이 단계에서 사랑은 “emphatic power"로서 본질 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는 상상력과 혼동될 수 있다. 그리하여 Mr. Jones는 상상력을 열정으로 간주한다. “the imagination is the intuitive passion or energy."[22] Mr. Murry도 사랑을 “a faculty of understanding"[23]라고 주장한다. 상상력과 사랑은 상호 의존하여 각기 정신적, 심리적 면에서 “intensity" 상태를 진작한다.

「프시케에게 붙이는 송가(Ode to Psyche)」를 고찰하면, 시인은 시 작품에서 프시케의 고통을 대시하는데, 그 능력은 상상력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시 전체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세밀하게 프시케와 큐피드를 묘사하고 있다.

They lay calm-breathing on the bedded grass;
Their arms embraced, and their pinions too;
Their lips touched not, but had not dade adieu,
As if disjoine by soft-handed slumber,
And ready still past kisses to outnumber
At tender eye-dawn of aurorean love:
The winged boy I knew;
But who wast thou, O happy dove?
His Psyche true!(15~23)

여기서 날개 달린 소년은 큐피트이다. 시인은 큐피트와 프시케의 그리스 신화를 차용하여 신과 인간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작품에서 프시케와 큐피드의 자세는 매우 모호하다. 서로 팔과 날개로 껴안고 있는 이들은 입술은 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작별을 고하기보다는 더 많은 키스를 준비하

22) James Land Jones, Adam's Dream: Mythic Consciousness in Keats and Yeats(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75), p.68.
23) Murry, op. cit., p.198.

는 듯한 자세이다. 이들의 자세에서 두 개의 상반된, 즉 신과 인간의 결합이 상징하는 상반요소의 통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시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 큐피트와 결혼함으로써 여신으로 변모되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시에서 프시케의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대신함으로써 한 인간이 영혼을 성취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현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수용을 통해 고귀한 가치로 변모될 수 있다는 시인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다.

키츠에게 있어서 상상력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그는 이들의 밀접한 관계를 그의 시 "Ode to Psyche (프시케에게 붙이는 송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Psyche와 Love의 사랑을 그린 이 시에서 그는 Psyche의 사도가 되겠노라 말한다.

Yes, I will be thy priest, and build a fane

In some untrodden region of my mind. ("Psyche", 50-51)

그는 시인으로서 정신의 활동인 상상력을 기릴 것이며, 동시에 상상력과 사랑의 밀접한 관계를 옹호하고 축수할 것이다.

And there shall be for thee all soft delight

That shadowy thought can win,

A bright torch, and a casement ope at night,

To let the warm Love in! ("Psyche", 64-67)

상상력이 사랑을 갈망함을 어두운 함 호롱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서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다정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상상력은 사랑에 의해서 더 활발해지고 사랑 또한 상상력의 힘으로 더 강렬해진다. "Intensity"의 절정에서 시들은 시 창조 다음 단계인 "identity"로 접어든다. 그는 현실을 초월한 순수한 정신세계 속에서 상상력의

힘으로 “beauty"에서 직관적으로 감지한 객체의 본질을 파악하여 표현한다. “identity"단계에서는 감정의 작용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 대신 상상력의 직관적이 면서 지적인 “visionary power"가 독점하여 작용한다. 시인은 이 상상력에 의해서 객체의 본질을 꿰뚫어 그것을 상징적으로 읽어본다. 예를 들어, "Urn"에서 시인은 “intensity" 단계를 거친 직후 그 유명한 “Beauty is truth, truth beauty."를 마지막으로 결론지어 말한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미/진리에 쉽게 도달한 것은 아니다. 일련의 회의와 고통의 과정을 시인은 겪었던 것이다. 오드「가을에게 붙이는 송가(Ode to Autumn)」인용해 보면 시인의 이러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키츠의 “오드 중 가장 아름답고 완벽에 가까운 시”, “완벽하면서도 다양성이 시도된 시”라는 찬사를 받는 시이다. 이러한 극찬을 받은 이 시는 주제난 기교면에서 뛰어난 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3연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을에게 붙이는 송가(Ode to Autumn)」에서 시신은 각 연에서 추수 이전과, 추수, 그리고 추수 이후의 정경을 다루고 있다.

1연에서 시인은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찬미하고 있다.

Season of mist and mellow fruitfulness,
Close bosom-friend of the maturing sun;
Conspiring with him how to load and bless
with fruit the vines that round the thatch-eaves rum;(1～4)

여기서 결실의 계절이라는 가을의 특성인 풍성함과 성숙함이 넘쳐난다.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경계이다. 이 계절은 충성한 수확이 있는 반면 죽어야 되는 소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풍성한 가을이 결실을 마냥 축복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Where are the songs of Spring? Aye, where are they?
Think not of them, thou hast thy music too-

While barred clouds bloom the soft-dying day,
and touch the stubble-plains with rosy hue;
Then in a wailful choir the small gnats mourn(23～27)

시인은 가을의 풍성한 정경 속에서 봄의 노래를 회상하고 있다. 시인의 가을의 정경에서 봄의 가운을 되살리는 것은 가을 추수에는 죽음과 생명,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이 시에서 가을의 형상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으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객관적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성숙과 쇠퇴라는 생의 과정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무르익고, 성숙한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 대한 철학적 수용이다.[24]

그 예를 다음 시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다.

How beautiful the season is now-How fine the air, A temperate sharpness about it …I never lik'd stubble fields so much as now-Aye better that the chilly green of the spring. Somehow as stubble plain looks warm-in the same way that some pictures look warm-this struck me so much in my sunday's that I composed upon it.(I , 167)

시인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차가운 푸른빛보다 가을 수확이 끝나고 여기저기 곡식의 그루터기가 풍성한 모양으로 남아있는 가을 들판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이 편지와 「가을에게 붙이는 송가」를 연결하여 시를 해석하게 되면 편지는 시인의 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추실한 주석역할을 한다. 시인은 분명히 생명의 봄보다 결실의 가을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편지는 영원한 가치에 대한 시인의 정신적 성숙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감각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시인의 경험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의 편지에는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24) Sheats, Paul D."Keats and Ode" The Cambridge Companion to Keats, Ed. Susan J. Wolfson. Cambridge UP, Cambridge 2001.

편지들 속에서 키츠는 완전히 비자의식 진지성(비록 많은 유머의 불꽃이 빛나지만)으로, 시에 대한, 그리고 시인으로서 그 자신의 여러 목적에 대한 그의 발전과정을 그의 수신자들에게 털어놓았다. 이 편지들은 키츠의 전제적 활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소중한 실마리일 뿐만이 아니다. 키츠의 편지 집음 또한 비평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이다. 또 특히 한편으로 감각에 대한 예술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한편으로 끼치는 비평 분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25]으로써 작용한다.

감각은 우리의 오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감각에 대한 경험은 직접적이 된다. 그러나 그 감각은 때로는 쾌락이나 환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우수에 붙이는 송가(Ode on Melancholy)」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감각의 역설적 경험이다.

She dwells with Beauty-Beauty that must die;
And Joy, whose hand is ever at his lips
Bidding adieu; and aching Pleasure nigh,
Turning to Poison while the bee-mouth sips;
Aye, in the very temple of Delight
Veiled Melancholy has her 냎'reign shrine,
Though seen of none save him whose strenuous tongue
Can burst Joy's grape against his palate fine;
His soul shall taste the sadness of her might,
And be among her cloudy trophies hung.[26]

인용된 시 전체는 매우 감각적이다. "꿀벌의 입이 빨고 있는"것은 쾌락과 고통,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 시에서 시인은 철저한 쾌락의 경험은

25) Daiches, David.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2 vols. Mandarin, London, 1994.

26) Harold Edgar Briggs, ed. *The Completed Poetry and Selected Prose of John Keats,* The Morden Library, New York, 1951, pp.293-294.이하 시의 인용은 이판에서 하되 인용 뒤에 괄호 안에 행수만 밝힌다.

오히려 슬픔을 낳게 된다. 하지만 그 슬픔은 향락이 아니고 지혜로 남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희의 포도를 터뜨린 사람은 달콤한 주스가 아니라 통렬한 슬픔을 맛보고 베일을 쓴 "우수"의 성단에 도달하게 된다. 베일을 쓴 우수의 여신의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세상의 고통과 악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죽어야 하는 미를 통해 우수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은 잠깬 영혼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수는 미와 기쁨과 쾌락을 알레고리적으로 의인화 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들을 무효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미와 기쁨과 쾌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된 시 전체는 역설적이다. 우수는 미와 함께 존재하며, 미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환희도 함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독을 쑤시는 듯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결국 우수/미/죽음/환희/쾌락은 시인의 상상력 속에서는 통합된 존재로 동격관계가 된다.

1817년 11월 22일 벤자민 베일리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상상력은 미와 진리를 포착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작용한다.

I am certain of nothing but the holiness of the Heart's affections and the truth of Imagination-What the imagination seizes as Beauty must be truth-whether it existed before of not-for I have the same Idea of all our Passions as of Love they are all in their sublime, creative of essential Beauty-(I ,185)

이 편지에서 궁극적 진리란 과학적·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힘은 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은 성스러운 것이다. 감각적 경험이 강한 감정을 유발하여 이 감정이 다시 상상력을 작동시켜 미/진리를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삶의 궁극적 실체가 되는 셈이다.

키츠는 지인이나 동생들, 그리고 약혼녀였던 패니 브라운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는 그 자체로 시인의 시 작품을 읽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시인은 1817년 12월 21일 자신의 동생들인 조지와 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

를 보냈다.

It struck me, what quality went to from a /man of Achievement espeacially in Literature & which Shakespeare possessed so enormously- I mean *Negative capability*, that is when man is capable of being in un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 reason (I ,193)

시인이 형제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시인은 시적 능력 중에서 사실과 이성에 집착하지 않고, 불확실한 것과 의심스러운 것과 같은 것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소극적 수용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이성과 대조되는 상상력의 능력 즉, 통합적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능력은 모든 사물에서 미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이며 미의 대상을 생각하여 그 대상에서 진리를 찾아내어 시로 옮기는 능력이 된다. 이는 콜리지의 "불신에 대한 가까운 정지(willing suspense of disbelief)"와 비교할 수 있지만 키츠의 것은 보다 겸허한 인간상을 반영하고 있다. 위의 인용된 편지에서 나타나는 "소극적 수용능력"을 지닌 시인은 "사실과 이유를 불확실성, 신비, 회의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소극적 수용능력을 가장 많이 지닌 시인을 키츠는 셰익스피어로 꼽고 있다. 여기서 소극적 수용능력은 시인을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게 하는 능력이며 시작품에서 미를 최상화 시키면서 시를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소극적 수용능력"은 시인의 문학관과 인생관을 이해하는데 주요 열쇠가 될 뿐 아니라 시인전체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이처럼 "소극적 수용력"은 시인의 시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시인의 시 작품에 대한 충실한 주석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키츠는 "위대한 철학자라도 진리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많은 이론을 물리쳐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시인에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어떠한 심오한 "사고"보다는 사물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시인에게는 심미 감각이 모든 다른 고려를 물리친다.

키츠는 삶 자체를 모순이 합쳐진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그의 인생관을 그의

시 속에 내포했다는 데에 그의 시적 천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현실, 영원과 순간, 삶과 죽음 등 상반되는 특질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융화되어 공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키츠는 상상력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의식과 무의식을 뛰어넘으려 노력하였다. 키츠의 초기 시들이 현실을 떠나 상상적 도피를 추구하고 있으며, 점차'경'이의해의 시들을 쓰면서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키츠 시에 대한 일반적견해이다. 키츠는 초기 시에서 상상력을 현실도피를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초자연적이거나 환상적인 세계에서 위안을 얻고자한다. 현실과 유리된 상상력이란 단순히 환상적이며. 파괴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점차 현실을 포용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상상력을 추구하게 된다. 키츠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이상과 현실을 분리하거나 배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융화된 차원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벤자민 베일리(Benjamin Bailey)에게 보낸 1817년 11월 22일 2자의편지에서 상상력을 아담의 꿈에 비유하고 있다.

The Imagination may be compared to Adam's dream -
he awoke and found it truth.[27]

시인이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도 '꿈(dreaming)'과'깨'어남(waking)'이고 처하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초기 시에 나타나는 환상적 세계로의 도피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

한 탐색과정이라고 풀이 될 수 있다. 키츠의 편지들에는 그가 주요한 시에 극적으로 표

현했던 갈등들 을 스스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세

상과 싸워야하는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이 불행이고, 슬픔, 질병 등으로 가득함을 알았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키츠는 시

간을 인식함으로써 받게 되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노력이

27) Letters, Vol. Ⅰ, p.185

그의 초기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키츠가 자신의 편지에서 '상상력을 시험하는 시'이며, 자신이 상당히 노고를 들여 쓴 첫 번째요 유일한 것 'the first and the only one which I have taken even moderate pains[28]'이라고 밝힌 시 'Endymion' 1행의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 ever)'이라는 표현에서 'A thing' 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체적인 사물들을 의미하며 Beauty는 사물의 본질적인 미를 지칭한다. 키츠는 사물의 본질적인 미를 인식함으로써 Joy를 느낀다. 어떤 사물이나 자연의 현상이 아름다움으로 포착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외부세계와 서로 통합됨을 시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키츠에게 있어 현실의 고통은 시간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젊은이는 창백해지고 야위어져 죽어가고 미는 사라져야만 한다. 아름답고 귀중한 모든 것이 그 반대의 속성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현상은 자연과 인간의 삶의 필연적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시간과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상상력에의 모색(an investigation of the imagination's ability to cope with time and change)[29] 이야말로 키츠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과제이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상상력을 통해 미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는 소극적 수용능력인데 이 힘을 빌어 상상력과 융화하고 결국에는 진리에도 달하여 본질을 찾게 되고 영혼을 형성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시에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시를 쓰고자한다. 결국 변신하는 시인(chameleon poet)은 키츠의 상상력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 A poet is the most unpoetical of anything in existences; because he has no Identity - he is continually in for and filling some other body - The sun, the moon, the Sea and men and women, who are creatures of impulse, are poetical, and have about them an

28) Letters, Vol. Ⅱ, p.105
29) Jack Sillinger, Hoodwinking of Madeline and other Essays on Keat's Poems(Champaign, Ⅲ: Univ of Illinois Press, 1971), p109.

unchangeable attribute; the poet has none, no identity - he is certainly the most unpoetical of all God's creatures. [30]

시인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시적이게 된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버리고 태양, 달, 바다, 인간 등의 충동적이고 정체성을 지닌 시적인 객체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격렬하게 객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정체성을 감지한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가장 독자적이고 고정된 성격을 갖지 않아서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그는 시 속에서 정체성이 없는 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 진리의미를 인지함으로써 수동적 수용력에 의해 현실세계를 수용하고 정신적 자유로움을 획득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세계의 대상물에 대한 상상력의 풍부한 작용으로 그 본질을 포착한다. 적극적 자아의 몰입과 그것에서 오는 행복감은 그가 말한 소극적 수용능력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을 포함하는 상상력에 의한 자아개방인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상상력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키츠는 실제가 구현된 이 세상을 영혼 형성의 계곡 (a vale of soul-making)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간 자신의 내면 속에 영혼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영혼 형성의 계곡을 내세운다.

Call the world if you please the vale of soul-making
Then you will find out the use of the world. I say
'soul-making' soul as distinguished from an intelligence -
There may be Intelligences or sparks of the divinity in
millions - but they are not souls <the> till they acquire
identities, till each one is personally itself. · · ·
how then are Souls to be made? How then are these sparks
which are God to have identity given them - so as ever to
possess a bliss peculiar to each ones individual existence?
How, but by the medium of the world like this? This point I

30) Letters, Vol. Ⅱ, pp. 152-153

since rely wish to consider because I think it a grander system of salvation than the christ(e)ain religion - or rather it is a system of Spirit-creation. [31]

부르고 싶으면 세상을 '영혼형성계곡'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너는 세상의 쓸모를 알게 될 것이다. 영혼형성에서의 영혼은 지성과 구분되는 것이다 -수백만의 다양한 빛과 지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들은 정체성을 획득해야만 그리고 각각 그자체거나 개별적인 것이 되어야만 영혼이라 할 수 있다・・・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신이 빛들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위해 어떻게 하는가 인간 개인에게 특별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인가 이와 같은 세상의 중재에 의해서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혼창조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영혼 형성을 위한 3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se there are Materials are the Intelligence - the human heart and the World or Elemental space suited for the proper action of Mind and Heart on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forming the soul or intelligence destined to possess the sense of Identity. [32]

지성- 감성과 세상이 있으니 세상은 영혼형성을 위한 지성과 감성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필요한 영혼형성공간이며 지성은 본질을 간직하도록 되어있다.

'heart'란 인간의 본능적인 것, 특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이란 지성과 감성의 적절한 대립 상호작용에 필요한 공간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비유된다.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오히려 영혼을 만들기 위한 지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키츠에게 있어서 영혼은 바로 이런 사랑의 흔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함으로써 얻어질 수

31) Letters, Vol. Ⅰ, p.102
32) Maurice Buxton Forman, The Letters of John Keats (London: Oxford Univ. Press, 1952), To George and Thomas Keats, 21 Dec. 1817, p.32)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이트(Walter J. Bate)는 자기를 버리고 객체의 사물 속에 몰입하고자 하는 충동은 영혼을 갖는 것과 연관된다.(The impulse towards self-absorption in the object is associated with having the 'soul') 고 말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미/진리에 쉽게 도달한 것은 아니다. 일련의 회의와 고통의 과정을 시인은 겪었던 것이다. 오드「가을에 붙이는 송가」인용해 보면 시인의 이러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키츠의 "오드 중 가장 아름답고 완벽에 가까운 시", "완벽하면서도 다양성이 시도된 시"라는 찬사를 받는 시이다. 이러한 극찬을 받은 이 시는 주제난 기교면에서 뛰어난 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3연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을에 붙이는 송가」에서 시신은 각 연에서 추수 이전과, 추수, 그리고 추수 이후의 정경을 다루고 있다.

1연에서 시인은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찬미하고 있다.

Season of mist and mellow fruitfulness,
Close bosom-friend of the maturing sun;
Conspiring with him how to load and bless
with fruit the vines that round the thatch-eaves rum;(1～4)

여기서 결실의 계절이라는 가을의 특성인 풍성함과 성숙함이 넘쳐난다.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경계이다. 이 계절은 충성한 수확이 있는 반면 죽어야 되는 소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풍성한 가을이 결실을 마냥 축복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Where are the songs of Spring? Aye, where are they?
Think not of them, thou hast thy music too-
While barred clouds bloom the soft-dying day,
and touch the stubble-plains with rosy hue;

Then in a wailful choir the small gnats mourn(23~27)

시인은 가을의 풍성한 정경 속에서 봄의 노래를 회상하고 있다. 시인의 가을의 정경에서 봄의 가운을 되살리는 것은 가을 추수에는 죽음과 생명,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이 시에서 가을의 형상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으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객관적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성숙과 쇠퇴라는 생의 과정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무르익고, 성숙한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 대한 철학적 수용이다. 그 예를 다음 시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다.

How beautiful the season is now-How fine the air, A temperate sharpness about it …I never lik'd stubble fields so much as now-Aye better that the chilly green of the spring. Somehow as stubble plain looks warm-in the same way that some pictures look warm-this struck me so much in my sunday's that I composed upon it.(I , 167)

시인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차가운 푸른빛보다 가을 수확이 끝나고 여기저기 곡식의 그루터기가 풍성한 모양으로 남아있는 가을 들판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이 편지와 「가을에 붙이는 송가」를 연결하여 시를 해석하게 되면 편지는 시인의 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추실한 주석역할을 한다. 시인은 분명히 생명의 봄보다 결실의 가을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편지는 영원한 가치에 대한 시인의 정신적 성숙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감각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시인의 경험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의 편지에는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편지들 속에서 키츠는 완전히 비자의식 진지성(비록 많은 유머의 불꽃이 빛나지만)으로, 시에 대한, 그리고 시인으로서 그 자신의 여러 목적에 대한 그의 발전과정을 그의 수신자들에게 털어놓았다. 이 편지들은 키츠의 전제적 활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소중한 실마리일 뿐만이 아니다. 키츠의 편지 집음 또한 비평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이다. 또 특히 한편으로

감각에 대한 예술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한편으로 끼치는 비평 분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으로써 작용한다.

「그리스 항아리에게 붙이는 송가(Ode on a Grecian Urn)」에서 시인은 예술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문제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미와 진리를 동일시하면서 미를 진리의 위상에 올려놓는다. 그리스 항아리 자체는 그것이 빚어졌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함으로서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유명한 편지 "영혼 만들기(Soul-Making)"에서 시인은 세상을 영혼을 만드는 계곡으로 정의하면서 영혼은 지성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악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있고 이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Ⅱ, 102) 시인은 이 편지에서 사람다우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영혼을 소유해야 하는데 고통과 고뇌가 사람에게 바로 이 영혼을 소유하게 만든다고 적고 있다.

나아가 1819년 2월 14일에서 5월 3일에 걸쳐 동생 조지와 조지아나에게 보낼 편지에서 시인은 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I will call world a school instituted for the purpose of teaching little children to read-I will call the human heart the Horn Book used in that school-and I will call the child able to read, the soul made from that school 문d troubles is to school and Intelligence and make it a soul? A place where the heart must feel and suffer in a thousand diverse ways. (Ⅱ, 103)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슬픔과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련 하에서 이를 극복하지도 않고, 삶 자체 안에서 그 가치와 존재 이유를 찾아내는 시인의 이런 태도는 현실의 삶 그 자체와 그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를, 따라서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일찍이 시인이 남기도 한 편지의 진가를 파악하고 "시인의 위대

성은 시에서보다 편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키츠의 훌륭한 인간성은 편지 구절구절 아주 사소한 것 사이에 예기치 못한 곳에 드러나 있다”고 피력했다.[33] 이처럼 시인의 편지는 시인의 시작과 시론을 특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삶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키츠의 이 원리는 삶을 어둡게 만드는 고통과 악조차도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 삶의 아름다운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 수용능력”의 산물로 “물이 모든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는 원리”이다.

시인은 시적·직적 신념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는 않았다. 작품에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시인은 그 답을 독자들에게 찾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작품에서 대립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그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항아리에게 붙이는 송가(Ode on a Grecian Urn)」는 무생물인 항아리를 소재로 하여 인간과 인생의 무상함을 불멸과 본질에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와 진리를 통합시킴으로써 모든 대극적 요소의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항아리의 세계는 모두가 역설적이다. 조용하기도 하고 “파이프”와 “탬버린”소리에 시끄럽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인의 특징적 역설은 2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Heard melodies are sweet, but those unheard
Are sweeter; therefore, ye soft pipes, play on;
Not to the sensual ear, but, more endear′d
Pipw to the spirit ditties of no tone:(11～14)

“들리는 가락은 감미롭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가락은 더욱 감미롭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그 가락은 들릴지도 모른다. 시인은 그러나 그대여 조용히 피리를 계속해서 감각의 귀가 아닌 더욱 사랑스러운 가락이 없는 노래를 정신에게 불어 달라고 한다. 가락이 없는 노래를 정신에게 불어달라는 요구는

33) T. S. Eliot, "Keats," K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W. J. Bate. Prentice-Hall, Inc, NJ. 1964

상상력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용능력”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상태가 되면 정신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신비감을 주는 것은 4연의 작은 도시의 이상한 적막감이다. 그 거리는 “영원히 더 고용함” 영원한 신비의 장막에 싸여있다. 아무도 그 침묵을 갤 수 없고 아무도 그 마을이 왜 버려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소극적 수용능력”으로 그 마을에 접근할 수 있다.왜 그 마을이 “텅 비어”있는지 물을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시인에게 있어 미의 표현 방식은 진리 추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구체화하여 핵심적인 연상이나 개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화롭지 못한 것을 배제하고 인간 조건을 근거로 한 인생의 찰나적 한계를 띈 미를 통하여 예술, 곧 진리로 승화시키는 미와의 조화는 그리스 항아리처럼 인생의 한계를 달하여 주는 영원성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다.

…Cold Pastoral!
When old age shall this generation waste,
Thou shalt remain, in midst of other woe
Than ours, a friend to man, to whom thou say′st,
″Beauty is truth, truth beauty,″-that is all
Ye know on earth, and all ye need to know.(45～50)

“차가운 목가여!” 우리 세대가 늙어 사라져 없을지라도 그대는 우리의 슬픔이 아닌 다른 이들의 슬픔 속에서 말하리라. “미는 진리이고, 진리는 미다.” 이것만이 지상에서 그대가 알아야 할 전부이고 알 필요가 있는 전부이다. 이 구절은 수많은 비평가들을 당화하게 하였고 쩔쩔매게 하였고 여전히 그 의미는 미결인 채 남아있다.[34] 수많은 해석이 열려 있어, 시 전체의 중요성은 이 구절을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열정과 욕망은 채우고 나면 물리게 되지만 항아리에 그려진 목화는 경험의 순간을 담아 차가운 대리석의 불멸성으로 고정시켜 버렸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그 목가의 아름다움은 얼어붙은 순간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이 유동적 세상보

34) Brooks, Cleanth. *The Well Wrought Urn.* Brace & Co, Harcourt,1975.

다 훨씬 유동적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느끼는 “소극적 능력”에 따라 의미도 유동적이 될 것이다. 시인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영원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에 대한 적절한 “소극적 능력”의 상관물을 항아리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시인은 초기 시「엔디미온」의 서두에서 “미란 영원한 즐거움/그 사랑스러움은 증가하고 결코 무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다. 미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성으로 강조했는데 이제 시인은 ‘미’만이 진실이며 진실만이 미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남긴다.

미의 명제는 키츠가 시작 초기부터 진리와 실제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사색에서 보다 상상력을 매개로 한 감각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상상력은 다음에서 주장한대로 시인에게 있어서 본질의 궁극적 추구 없이 끊임없이 회의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cm의 편지 집은 비평적 지혜 및 인간 지혜의 유언이 되었다.(한 세대 전의 T.S 엘리엇의 찬사가, 혹은 후일 W. H. 오든의 찬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많은 이념과 용어가 우리 비평계에 적용하는 조어가 되었다. 오늘날 키츠는 W.J. 베이트가 지적했듯이 우리의 “문학적 양심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키츠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키츠의 그때그때 기분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시와 인생에 대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표현들 중 많은 부분이 정해졌거나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키츠는 그 편지들 속에서 시작에 있어서 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안 잭이 말하고 있듯이 그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 맞는 키츠에 관한 것들 중의 한 가지는 그의 시적, 지적 신념과 직관이 키츠 자신의 회의적 추구에 의해 계속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이다.[35)]

지금까지 시인의 편지와 다섯 편의 오드를 통해서 시인의 소극적 수용능력의 시학을 고찰해 보았다. 시인은 오드에서 양면적인 감정을 노출시키고 있지만, 변증법적 관점에서 시인은 자신이 추구했던 미와 진리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인의 오드는 관능적 충동과 도피적 경향을 띤 시에서

35) Bush, Douglas. *John Keats.* Collier Books, New York, 1976.

철학적 회의주의의 시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인의 회의주의적 시적 경향은 열성적인 감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화·발전시켜 보다 심원하고 포괄적인 진리와 미에 도달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시인의 편지는 시인의 압축된 시론과 인생관이 나타나 있다. 시인의 정수된 창작행위는 시인의 짧은 시작 생활과 불행했던 사생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짧은 생애동안 삶의 정수를 살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시인의 자세는 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생명의 의미, 생의 보람, 환희, 등등 시인의 예술관과 인생관이 나타나 있어 시인의 시적 발전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시인의 편지는 시인의 시와 함께 평행을 이루며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최근에는 시인의 정신과 성격의 구체적 힘, 인생과 예술에 대한 철학적 태도, 놀라울 정도의 자아 인식, 그리고 성장 능력, 시적 성실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등이 시인을 이해하는 더욱 일반적 견해가 되고 있다.

키츠의 시와 편지들을 읽어가는 동안 자주 만나게 되는 “겸손”, “복종”, “사랑”, “애정”, “인간성”, “신”등 이러한 단어들은 시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겨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은 시인의 시작 전체에 대한 가치관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 자신의 한 사람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 시로 정교하게 재구축된 것으로 그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낭만주의 시인들 중에서 키츠는 자아 표현에서 탈출하여 셰익스피어처럼 비자아적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극적 수용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항상 시인을 괴롭혔지만 시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결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셸리의 주인공들은 낭만적 이상주의자들로서 인간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거나 좌정하여 고독하게 죽는다. 그래서 환상을 추구하고 살기보다는 소멸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인 키츠[36]는 순전히 상상적 이상주의에서 탈피해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셸리가 결코 하지 못한 인간의 평범한 경험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였다. 이 점이 시인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결코 인기의 부침이 없게 한 점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가 왜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가 왜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가 이룬 업적은 우리의 상상 밖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업적은, 26살의 젊은 나이로 글쓰기를 마감했을 때 초서, 셰익스피어, 밀턴이 동년배에 이룩한 업적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은 "그리스 항아리에게 붙이는 송가"의 세계처럼 시간이 정지된 채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에게 남아 "불멸의 새"가 되어 미와 진실을 노래해 줄 것이다.

Peace, peace! he is not dead, he doth not sleep-
He hath awakened from the dream of life- (Shelly, "Adonais" 333~334)

36) Keats, John.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2 vols, Ed. Hyder Edward Rollins, Harvard UP, Cambridge, 1980.

IV. 결 론

존 키츠는 1795년 태어나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오로지 미와 진리를 포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키츠는 현실의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미를 추구하기 위해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을 시론으로 시적 상상력의 정수인 여러 송시에 표현하였다. 그의 시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속성을 지닌 미를 포착하는 것이 였으며, 이러한 미는 진리와 다름이 없다고 여겼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힘들고 지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미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위로를 준다.

키츠는 고대 로마인의 삶과 그들이 꽃피웠던 문명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작품의 근원적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키츠의 삶은 비극적인 것이었기에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마련하는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시 세계를 마련하였다. '소극적 능력'는 고통 극복의 수단이인간의 본능인 긍정적 삶을 지향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키츠가 추구하는 미와 진리의 포착을 위해 필수적인 방법론이라고 한다. 그의 시론인 'Negative Capability'는 키츠가 불운했던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최고의 미(highest Beauty)'를 그의 시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완성을 볼 수 있다. 키츠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통하여 고통을 겪으면서도 시에 대한 꺾이지 않는 열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발산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가 더욱 위대할 수 있다.

그는 무아의 상태에서 삶과 시를 관조하는 태도를 지향하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와 자신의 'Negative Capability' 시론을 접목시킴으로써, 영문학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세계와 견줄 만한 탁월함을 이루어냈다. 그 후, 1821년 로마에서 폐질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시인으로서 키츠의 본질적 의도는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미의 원리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키츠의 상상력 개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서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외부를 향해 열린 마음 즉, 소극적 수용력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 워즈워드

(Wordsworth)는 기존의 고전주의 제도에서의 탈출구로써 자연을 선택하였는데 셸리(Shelley)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그리고 키츠는 과거를 선택하였다고 이 때 키츠가 탈출하고자 하는 세계는 당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중세와 가장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이상적인 엘리자베스 시대로 나타나고 있다. 키츠는 짧은 생애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추구하여 이를 시 속에 표현하고자 그의 모든 삶을 시적활동에 바쳤던 시인이다.

그는 이와 같은 목적에 대해 강렬한 집중의 태도를 가지고 미, 그 자체를 위한 미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미에 대한 집념과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키츠의 시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한 흡인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가 이뤄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키츠가 극히 제한되고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시를 매개체로, 미와 진리를 포착하기 위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관조했던 노력과 그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키츠의 완성된 시적 성과는 그가 일궈놓은 비범한 시론인 'Negative Capability'과 더불어 후대의 작가와 비평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키츠가 남긴 시와 시 속에 내재된 'Negative Capability(소극적 능력)' 개념들은 영원한 생명력을 유지하여 후배 시인인 T.S 엘리엇에 의해 더욱 고양된 문학적 성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실로, 그가 쌓은 업적이나 경력, 영향력이 셰익스피어와 견주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그가 그토록 우러러 보았던 단테, 초서, 셰익스피어의 계보를 잇는 대표 작가로 추앙 받기에 모자람이 없었을 것이다.

후대의 비평가인 매튜 아놀드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끝나버린 열정적인 한 시인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시에서 셰익스피어를 제외하고 아무도 표현에 있어서 키츠의 매혹적인 지복, 그의 사랑의 완전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는 겸손하고 '나는 죽은 후에 영국의 시인 가운데 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시인 가운데 들게 되었으며, 셰익스피어의 반열에 놓이게 되었다.

No one else in English Poetry, sace Shakespeare, has in expression quite the fascination felicity of Keats, his perfection of loveliness.
"I think," he said humbly, "I shall be among the English poets after my death.", "He is; he is with Shakespeare." (Essay in Criticism 193)

키츠의 상상력 개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서 미

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외부를 향해 열린 마음 즉 소극적 수용력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 워즈워드(Wordsworth)는 기존의 고전주의제도에서의 탈출구로써 자연을 선택하였는데 셸리(Shelley)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그리고 키츠는 과거를 선택하였다고 이때. 키츠가 탈출하고자 하는 세계는 당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중세와 가장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이상적인 엘리자베스 시대로 나타나고 있다. 키츠는 짧은 생애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추구하여 이를 시 속에 표현하고자 그의 모든 삶을 시작활동에 바쳤던 시인이다. *Endymion* 서두에서 미에 대한 키츠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 ever:
Its loneliness increase: it will never
Pass into nothingness: but still keep
A bower quiet for us, and a sleep
Full of sweet dreams, and health, and quiet breathing. (*Endymion. I. 1-5)*

이것은 키츠가 자연의 변화과정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종말을 예견하게 되고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키츠는 '가을에게 붙이는 송가(To Autumn)'에서 자신의 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힘, 용기, 희망, 기쁨 등을 주길 바라면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 항아리와 나이팅게일에서 느낄 수 있었던 영원한 미를 비로소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도 얻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물에서 상상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미가 영원히 존재하여 삶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며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키츠는 이제 자신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가을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영원한 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 시에서 키츠는 풍부한 상상력의 작용을 통한 진정한 미를 이룩하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삶에 투영된 고통과 슬픔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하였다 나아가서 여러 가지의 인간 조건들 즉, 질병, 기쁨, 사랑, 죽음 등을 조화롭게 포용하는 삶을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BIBLIOGRAPHY

1. Text

Cook, Elizabeth. *John Keats : The major works*, Oxford Univ. Press, 2001.

Rollins, Hyder Edward.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2v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9.

Bloom, Harold. *The odes of Keats*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 New york: Chelsea House Pub., 1987.

2. Reference

Banard, John. *John Keats: The complete Poems, 2nd*, New York : Penguin Books, 1977.

Bate, Jackson, Walter. *Coleridge, Keats, and the Imagination*, Columbia : Missouri Univ. Press, 1963.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London : Cornell Univ. Press, 1971).

Baker, Jeffery. *John Keats and Symbolism.* (sussex and New York, The Harvester Press, 1986).

Brooks, Cleanth. *Understanding Poetry, 4th ed..*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Bush, Douglas. *John Keats : His life and writings*, New York: Collier Books, 1966.

Lee, Chong-Ho. *The Fabric of Love and Death: Evolution of Feminine Principle in the Poems of John Keats,* Ph. D. Kent State Univ. 1984.

Dickstein, Morris. *Keats and His Poetr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4).

Fogle. H Richard. *Synaesthetic Imagery in Keats, in K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By W. J. Bate. 1975.

Forman, Maurice Buxton, *The Letters of John Keats (*London Oxford Univ. Press. 1952).

Hartman, Geoffrey. *The Fate of Reading*,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5, Hirsch, Edward. *Complete Poems and selected letters of John Keats,* New York : Random House Press, 2001. Hirst, Wolf Z. *John Keats: Twayne's English Authors Series* Boston : G. K. Hall & Co. 1981.
Jones, James Land.. *Adam's Dream: Mythic Consciousness in Keats and Yeats*. Athens: Univ. of Georgia Press, 1975.
Lau, Beth. *Keats's Reading of the Romantic Poets,* Michigan, Univ. of Michigan Press, 1991.
Muir, John Middleton. *Keats*, New York : Minerva Press, 1968.
Perkins, David. *The Quest For Permanence*(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1959).
Pettet, E. C. *On the Poetry of John Keats* (Cambridge, UP, 1957)
Sharp, A Ronald . *Keats, Skepticism, and the Religion of Beauty. Athens:*(The Univ, of Georgia Press.1979).
Sperry, Stuart M. *Keats the poet*, Princeton Univ. Press, 1973.
Spitzer, Leo. *Essay o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3.
Stillinger, Jack, *Hoodwinking of Madeline and other Essays on Keats's Poems* (Champaign, Ill.: Univ. of Illinois Press ,1971), p.109
Tate, Allen. *A Reading of Keats in John Keats: Odes*, ed., by G. S. Fraser (London: Macmillan, 1971).
Vendler, Helen. *The Odes of John Keats* (Cambridge and Mass: Harvard Univ. Press, 1983).
Waldoff, Leon. *Keats and the silent work of imagination*, Urbana and 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85.
Ward, Aileen. *John Keats: The making of a Poet* (New York : Viking Press, 1967).
Wasserman, Earl. R. *The Finer Tone : Keats Major Poems,* Baltimore: The Jones Hopkins Univ. Press, 1967.
Watson, J. R. E*nglish Poetry of the Romantic Period 1789-1830*, New

York: Longman, 1985.
Watts, Cedric. *A Preface to Keats*, New York : Longman, 1985.
Abrams, M. H. ed. *English Romantics Poets*. Oxford UP, New York, 1997. (436)
Gleckner, Robert. F. ed, *Romanticism Points of view,* Wayne State Up, Detroit, 1975.
Bate, Walter Jackson, ed. K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N.J, 1964.

Sheats, Paul D."Keats and Ode" The Cambridge Companion to Keats, Ed. Susan J. Wolfson. Cambridge UP, Cambridge 2001.
Daiches, David.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2 vols. Mandarin, London, 1994.
Harold Edgar Briggs, ed. *The Completed Poetry and Selected Prose of John Keats,* The Morden Library, New York, 1951,
T. S. Eliot, "Keats," K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W. J. Bate. Prentice-Hall, Inc, NJ. 1964
Keats, John.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2 vols, Ed. Hyder Edward Rollins, Harvard UP, Cambridge, 1980.
Harold Edgar Briggs, ed. *The Completed Poetry and Selected Prose of John Keats,* The Morden Library, New York, 1951

김철수, 「영국낭만시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대구 2005.
이정호,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영미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1.
김진규, 「키츠의 아름다운세상」, 경남대학교출판부 2000.
이재호, 「낭만주의 영시」, 탐구당, 서울, 1992.
이순영 「John Keats의 Odes에 나타난미 美의 추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2.
시몬슨, 하롤드 P, 「영국 문학비평서설」, 김정근, 탐구당, 서울, 1996.
김은희 「John Keats의 The Great Odes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 1989.
길호욱 「John Keats의 Odes에 나타난 미의 양상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0.
이은옥 「John Keats의 Odes에 나타난Reality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88.
이정호 「키츠시의연구」, 서울 서 울대학교출판부 2000.
이재호역『낭만주의영시』, 서울 탐 구당 1998.
양순덕 「John Keats의 시적상상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2.